

북경의 녹색[Green] 문화공간 체험

— 중산공원의 기억 —

趙 誠 煥*

<目 次>

I. 들어가며	3. 녹색 기억: 한인 漫步客 & 산책자
II. 북경의 그린 프로젝트	
III. 황색 속의 녹색 문화공간 체험	IV. 문학작품에 묘사된 중산공원의 이미지
1. 신문화운동과 중산공원 來今雨軒 집회	V. 나가며: 문화소통의 장으로서 공원의 활성화를 기대하며6
2. 문학 작품 산실로서의 공원	

I. 들어가며

공원은 근대의 산물이다. 또한 근대화 과정 중의 영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서울의 파고다공원, 인천의 만국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그리고 일본의 우에노공원, 히비야공원, 북경의 중앙공원, 상해의 홍구공원, 하얼빈의 또리공원, 홍콩의 빅토리아공원 등,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침잠되어 있는 이러한 동아시아 공원들은 근대 시기 버거운 역할을 완수하였고 지금도 아련한 문화소통의 장으로 남아있다.

공원은 또한 도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광장이다. 생계유지에 쪼들린 도시민, 고급문화를 향수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도시 하층민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이들에게 볼거리[경관, 인파, 음악회, 전시회, 결혼

* 慶北大學校 강사

식 등을 제공해주는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하는 것이다.

北京은 중국의 수도답게 공원이 가장 많아서 공원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다. 香山公園, 景山, 北海公園, 昆明湖, 玉淵潭¹⁾, 中山公園, 陶然亭公園, 紫竹院公園, 團結號公園, 水碓子公園, 紅領巾公園, 大觀園, 世界公園 등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아 북경 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북경에서 최초로 개방한 중산공원은 중화민국 정부의 내무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朱啓鈴(1872~1964)²⁾이 주도하여 천안문 서쪽의 제단을 개조하여 지은 공원이다. 정양문을 개조할 때 천안문 앞의 千步廊을 철거하고 나온 목재를 이용하여 공원을 지었고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 이로 인해 비용의 절감은 물론 폐품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까지 선보였다. 그는 특히 공원 안에 있는 천 년 묵은 측백나무를 아껴서 새로 난간을 만들고 신경 써서 관리했는데, 이 측백나무는 아직도 그 위용을 잃지 않아 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³⁾.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뇌리에서 빠져나간 지금의 중산공원에 무엇을 더 채워 넣을 수 있을까?

본고는 북경의 문화공간 지도 그리기의 일환으로 작성된 스케치이다.

II. 북경의 그린 프로젝트

청말 민국 초의 北京城 안팎은 그야말로 지붕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이는 녹색 도시 그 자체였다고 한다. 우선 韓雪野(1900~?)의 글속으로

-
- 1) 금나라 章宗이 이곳에서 낚시를 즐겼고 청 건륭제는 공원 동쪽에 행궁을 짓고 머물렀다고 한다.
 - 2) 貴州 開陽 사람으로 청 光緒 연간의 舉人이다. 일찍이 청말에 경사대학당 驛學堂 감독, 민국 시기에는 교통총장,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등직을 역임하였고 1930년에는 ‘中國營造學社’를 설립하여 수많은 건축 전문가를 배양한 바 있다.
 - 3) 천광중 지음/박지민 옮김, 《풍경: 베이징 古家와 중국 근대사 인물 이야기에서 역사를 보다》(현암사, 2007) 266쪽.

빠져보자.

북경에서 겨우 3백 리밖에 안 되는 天津에는 나무가 없는데 그리고 이 지방은 비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북경만은 울울창창하고 세 네 아름 되는 4, 5백 년의 고목들도 지금까지 의연히 무성하고 있소. 그래서 시내 외 이르는 곳마다 槐樹, 香樹, 柏木, 海棠, 등, 작약, 앵도나무, 榆木 등이 기수 없이 총립하여 景山이나 고층 건축에서 내려다보면 북경 일대는 전 판이 樹雲에 덮여 있고 그 중에 다만 성문과 高樓, 巨閣 등이 높게 드뚝고 있을 뿐이오. 가도 좌우에도 굉장히 큰 나무들이 서 있어서 녹음이 깊게 길바닥을 덮고 있소.⁴⁾

위의 수필은 1920년 북경에 유학하여 益智英文學校에서 사회학을 공부 하던 시기⁵⁾ 이후 두 번째로 북경을 방문하여 1940년 6월 10일에 유리창의 숙소에서 쓴 글이다.

다시 중국 작가 郁達夫(1896~1945)의 말을 들어보자.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북방 봄날의 자취는 성 안팎의 신록, 홍수처럼 흐르는 듯한 신록이다. 북경성은 본래 나무만 보이고 지붕은 보이지도 않는 녹색의 도시이다. 일단 9성의 문밖을 나서기만 하면, 사면의 황토 둔덕은 잡목으로 우거진 삼림이다. 햇빛을 받아 떨고 있는 파르스름한 물결은 반들거리고 반짝반짝 빛난다. 만일 신경계통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이 연녹색 바다의 물결 속에 자신의 몸을 문득 들여놓고 보면, 틀림없이 눈을 뜰 수 없고, 발로 설 수도 없어 의식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⁶⁾

-
- 4) 한설야, <연경의 여름>(《조광》 1940년 8월)
 5) 그의 북경 유학, 북경 생활 및 북경에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과의 교류 상황에 대해서는 서경석 저, 《한설야: 정치적 죽음과 문학적 삶》(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15~18쪽 참조.
 6) 郁達夫, <北平的四季>(姜德明 편, 《北京乎: 現代作家筆下的北京(上)》 三聯書店, 2005) 287~288쪽. 北方春天的最值得記憶的痕跡, 是城廂內外的那一層新綠, 同洪水似的新綠. 北京城, 本來就是一個只見樹木不見屋頂的綠色的都會, 一踏出九城的門戶, 四面的黃土坡上, 更是雜樹叢生的森林地了; 在日光里顫抖着的嫩綠的波浪, 油光光, 亮晶晶, 若是神經系統不十分健全的人, 驟然間身入到這一

위의 수필은 1923년 가을 북경대학의 통계학 강사로 초빙되어⁷⁾ 약 1년간 북경생활을 한 바 있는 옥달부가 1936년 5월 27일 福州에서 써서 《우주풍》 반월간 제20기 “북평특집(2)”(1936년 7월 1일)에 발표한 글이다.

한국의 한설야나 중국의 郁達夫가 본 녹색 도시 北京 풍경은 그야말로 초록 네트워크, 즉 ‘樹海’의 도시였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북경에 綠林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을까?

植樹는 明代에서도 매우 중시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 식수를 중시한 것은 빨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지⁸⁾, 환경녹화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명대 황궁 내에서 쓰일 연료는 대부분 河北 易州(易縣) 山廠에서 조달해서 공급했는데, 당시 역주의 “수목은 울창하여 빨감으로 쓰기에 편리했다(林木蓊鬱, 便於燒採)”. 후에는 마구 벌목하다보니 “수 백리 내에 온통 벌거숭이가 되었다(數百里內皆濯濯然)”. 이에 부득이 명 정부에서는 “경성 도랑길 및 변경의 땅에다가 빨감용으로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역주 山廠의 부족분을 채우자(京城渠路及邊境地多種柳樹, 用作燃料, 以備易州山廠之缺)”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었다.⁹⁾

버드나무는 궁성 안팎, 주택가, 물가 등지라면 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명, 청대에 白石橋, 玉河¹⁰⁾, 通惠河 등지에 심은 버드나무가 유명했다.

명, 청 양대에 太常寺에서 京師 壇廟에서의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였으며, 태상시 아래에 工程處를 두어 여기에서 단묘의 보수나 청

个淡綠色的海洋濤浪里去一看, 包管你要張不開眼, 立不住脚, 而昏蹶過去.

7) 1923년 가을에 북경대 경제과 교수 陳啓修는 학교 파견으로 소련으로 출장 가는 바람에 그는 옥달부를 추천하여 그의 강의를 대신하게 하였다. 王邵軍, 《生命在沉思: 馮至》(花山文藝出版社, 1992) 17쪽.

8) 이에 대해서는 邱仲麟 저/曹永憲 역, <인구증가, 삼림채벌과 明代 北京의 연료문제>(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중국 역대 도시구조와 사회변화》(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참조.

9) 청 孫承澤(1592~1676), 《天府廣記》 참조.

10) ‘御河’라고도 부른다. 명대 만력 연간의 진사이며 예부시랑을 지낸 郭正域에게 <玉河柳>라는 시가 전한다.

소 등의 일을 관장하였지만, 단묘에 심겨진 고목을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따라서 대량의 고목들이 바람에 쓰러지거나 말라죽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청 道光 20년(1840) 5월 15일 宣宗[愛新覺羅 旻寧: 1820~1850년 재위]은 내각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천단을 비롯한 각 단의 수목에 대하여 이전에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한 지 지금까지 여러 해가 되었다. 桂輪, 善燾, 禧恩, 連貴, 桂德, 惠豐, 果升阿, 祁俊, 奕興, 白文治를 당월 18일 전까지 파견하여 조사하고, 아울러 말라죽어서 그 자리에 심어야 할 각 수목을 상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상주하라. 조사보고서를 올려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륜 등이 상주하여 천단 및 각 단의 수목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태상시에서는 등기 대장을 만들어 공부로 보내어 비치해두고 조사하게 하였다. 그 안팎의 곳곳을 둘러보고 현재 남아있는 각 수목이외에도 바람에 부러지거나 말라죽은 나무, 그리고 빈곳에 나무를 심어야 될 지 말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관청에 알려 조사한 후 사이 심기를 참작하였다.¹¹⁾

두 달이 걸려 각 단, 즉 天壇、地壇、日壇、月壇、先農壇、社稷壇、先蠶壇 등지에 심겨진 고목 실태 조사를 마친 관리들은 선종에게 보고서(등기 대장)를 바쳤다. 선종은 다시 수목의 보호에 관한 두 번째 지시를 내렸다.

정유에 내각에 알린다. 善燾 등이 상주문을 올려 천단 및 각 단의 수목을 명령대로 조사하였고 아울러 베어낼 나무 및 말라죽은 가지를 제거해야 할 사항을 목록에 적어 제출한다고 했다. 조사에 의하면 수목의 톱질한 자국은 실제로 흔적이 남아있고 그 년도가 아주 오래 되었는데, 태상시의

11) 《宣宗實錄》: 天壇、各壇樹株, 前經派員稽查, 迄今已數年. 着派桂輪、善燾、禧恩、連貴、桂德、惠豐、果升阿、祁俊、奕興、白文治於本月十八日前往敬謹查看, 并將補種回乾樹株各樹木詳細查明, 據實具奏. 尋奏上, 得旨; 桂輪等奏, 恭查天壇、各壇樹株完竣. 著太常寺造具清冊, 咨送工部備查, 其內外圍各處, 除實存各樹外, 所有風損回乾及缺空處所, 應否補種樹株, 著即行知該官衙門查明, 酌量補種

원래의 상주문과 서로 부합하였다. 모든 수목에는 황새가 등지를 틀고 있어서 높은 곳에 가지가 말라죽으면 옆가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모두 톱질해서는 안 된다. 낮은 곳은 말라죽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공부에서는 태상시와 회동하여 조사보고를 기다려서 신중히 처리하라. 일을 마치면 어전의 대신에게 알리고 비치해두어야 한다. 이후 바람에 꺾이거나 말라죽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태상시에서는 매년 3월에 어전의 대신들에게 보고하고, 공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등기대장에 올리고 파견된 관원과 회동하여 베어버리되, 분명히 재차 보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¹²⁾

두 번의 선종의 지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각 단의 고목은 수년 동안 손질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선종은 실태 조사 보고를 내려 각 단의 전체 수목을 조사하고 아울러 등기 대장까지 구비하여 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손질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러주면서 선종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태상시에게 지시하기를, 매년 3월에는 정기적으로 수목을 점검하여 바람에 부러지거나 말라죽어서 제거해야 할 나무들을 등기 대장에 기입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매년 한 번씩 각 단의 수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고목에는 각종 새들이 등지를 틀어 살고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깃든 황새(灰鶴)까지도 보호하려는 세심함이 돋보이고 있는데, 선종은 현대 환경 운동가에 버금가는 놀라운 환경 보호주의자이다. 황실의 규정에 의하면 북경 성안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는 있으나, 베어낼 수 없다고 한 것이 그 예이다.¹³⁾

북경이 그래도 이만한 녹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들 선조들의 세심한 노

12) 《宣宗實錄》: 丁酉, 諭內閣: 善燾等奏, 遵查天壇、各壇樹株, 并查明鋸鉗及應去枯枝情形, 開單呈覽. 據查樹株鋸口實系舊有痕迹, 其爲歷年久遠, 與太常寺原奏相符. 所有樹株多有灰鶴結巢及高處枯乾, 恐傷旁枝之處, 俱着不准鋸鉗. 其低處應去枯枝, 着工部會同太常寺等查照冊載, 詳慎辦理. 事竣, 知照御前大臣備查. 嗣後如有風損、回乾應行鉗除樹株, 着太常寺於每年三月咨報御前大臣, 工部隨時載入清冊, 奏清派員會同鉗除, 明白覆奏, 以昭慎重

13) 蔣夢麟, 《西潮·新潮》(岳麓書社, 2000) 179쪽.

력 때문이 아닐까?

반대로 묻고 싶다.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이만한 녹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 우리 대학 캠퍼스에 이런 나무 그늘이 있는가? 산림청에, 동사무소 산림과에 수목 등기 대장을 구비해놓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가?

1936년에 간행된 <中央公園廿五周年紀念刊>의 ‘本園花信表’에 의하면, 중산공원에서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紫丁香, 山芝蘭, 香花, 白丁香, 紫荊, 海棠, 榆葉梅, 月季, 黃刺梅, 藤蘿, 白牡丹, 각종각색의 牡丹, 薔薇, 芍藥, 玫瑰 등 온갖 꽃이 순서대로 피운다고 한다. 그래서 1920~30년대에는 천진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멈추지 않고 북경 前門東站까지 직행하는 소위 ‘看花列車’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열차를 탄 유람객들은 막바로 중원공원으로 들어가 각종 꽃을 감상하다가 오후 6~7시경 천진행 열차를 타고 되돌아갈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소문은 한국에도 퍼졌다. 1945년 5월 9일 B여사를 단장으로 한 金史良(1914~1950), 盧天命(1912~1957), B씨 등 6명으로 조선 출신 학도병의 정황 선전 보도라는 명목으로 단체를 꾸려 北京행에 오를 때, 노천명은 순전히 “北京 春光도 시방이 한창이라는데……”¹⁵⁾라고 읊조렸는데, 이는 바로 중산공원에 대한 소문을 국내에서 듣고 한 말일 것이다.

중산공원은 자금성 서남쪽 長安街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唐代에 고찰이 세워졌고, 遼金 시대에는 興國寺 터였으며, 원대에 萬壽興國寺로 개명하였다. 明代에 북경 도성을 건축할 때 ‘左祖右社’의 궁전 건축 약식에 의거, 太廟와 社稷壇을 세웠다. 社稷壇은 명 永樂 19년[1421]에 축조되었다. 1914년에는 신해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0일 정식으로 개방하고 중앙공원으로 이름하였다. 太廟도 후에 和平公園[지금의 노동인민문화궁]으로 개방하였다. 그러니까 1914년 7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삼 개월 후의 일이다. 일본은 袁世凱(1859~1916)의 야심을 이용

14) 鄧雲鄉, <<增補燕京鄉土記(상)>>(중화서국, 1998) 280쪽.

15) 김사량 지음/김재용 편주, <<노마만리>>(실천문화사, 2002) 273쪽.

하여 그의 황제 복위를 도와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21개조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 일은 중국의 전 국민을 격분시켰다.

그러나 말로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公園’이었지, 시민들은 여전히 세금[입장료]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陳獨秀(1879~1942)가 <北京十代特色>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 친구가 새로 유럽에서 돌아와서는 각국에서 보지 못한 10대 특색을 보았노라고 말했다. (1) 계엄시대가 아닌데도 온 거리에는 순경들이 총을 메고 시민들은 위협한다. (2) 근사한 신화가의 거리를 성 밑까지 닦아놓고는 멈춰버렸다. (3) 자동차들이 좁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속으로 종횡무진 돌진해도 순경들은 저지하지 않는다. (4) 고급 군관들은 말을 타지 않고 전선이라도 나가는 양, 자동차를 타고 쓴살같이 달린다. (5) 12, 3세의 아이들과 60여 세의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가 인력거를 끌어도 경찰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6) 바람이 불어 먼지가 하늘에 가득 끼면 살수차를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물을 뿌린다. (7) 성안과 성 밖은 도루 도로인데도 유독 왕래하는 주요 도로인 전문교만 있고, 높낮이가 고르지 않은 돌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8) **분명이 공원이러지만 입장권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다.** (9) 총통부 앞은 통행할 수 없고, 봉군 사령부 문 앞도 통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10) 안정문 밖의 똥 더미에서 나는 악취는 세계에서 으뜸이다.¹⁶⁾

이는 유럽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서구적 도시 척도를 잣대로 삼아 북경 시정 관리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

16) 姜德明 편, 앞의 책, 4쪽. 有一位朋友新從歐洲回來, 他說在北京見了各國所沒有的十大特色: (一)不是戒嚴時代, 滿街巡警背着槍威嚇市民. (二)一條很好的新華街的馬路, 修到城根便止住了. (三)汽車在很狹的街上人叢裏橫衝直撞, 巡警不加攔阻. (四)高級軍官不騎馬, 却坐着汽車飛跑, 好像是開往前敵. (五)十二三歲的小孩子, 六十幾歲的老頭子, 都上街拉車, 警察不會干涉. (六)刮起風來灰塵滿天, 却只用人力撒水, 不用水車. (七)城裏城外總算都是馬路, 獨有往來的要道前門橋, 還留着一段高低不平的石頭路. (八)**分明說是公園, 却要買門票才能進去.** (九)總統府門前不許通行, 奉軍司令部門前也不許通行. (十)安定門外糞堆之臭, 天下第一!

중앙공원은 개방 이후부터 시위 및 집회의 단골 공간이 되었다. 1914년 당시 冰心(1900~1999)과 貝滿女中の 학생들은 대열을 지어 燈市口에서도보로 천안문 서쪽의 중앙공원으로 걸어갔다. 학생들의 대오가 중앙공원 사직단 부근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정서는 열렬하고 원기가 충만하였다.

당시 시위했던 패만여중의 영도자 중의 한사람은 李德奎(1896~1972; 馮玉祥의 부인)으로 당시 그녀는 17, 8세가량으로 그녀는 자신의 학교를 대표하여 용감하게 사직단에 올라가 군집한 학생 대오를 향하여 격앙되고 비분강개한 연설을 발표하였다.¹⁷⁾

이처럼 중앙공원은 황실의 전용 공간이 개방되자마자 북경 시민의 정치 무대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중앙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물리적 ‘휴식 공간’이라는 좁은 의미의 범주를 넘어서서 중국 역사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회, 문화, 정치적 공간이었고, 문화소통의 장이었던 것이다.

1928년에 손중산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산공원으로 개명한 이후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중국 전역에 ‘中山’이란 이름을 가진 공원이 수십 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중국 성립 후에는 다시금 중수하여 兒童遊樂場과 음악당을 증설하고 각종 전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북경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선 남문으로 들어서면 ‘保衛和平’石牌坊이 보인다. 이 패방은 원래 의화단에 의해 맞아죽은 독일의 주중 공사 케틀러(Klemens Von Ketteler: 중국명 克林德)을 위해 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세운 패방이었다. 1900년 케틀러는 의화단에 의해 암살당했고 1901년 굴욕적인 신축 조약[북경의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독일에 의해 세워진 ‘克林德牌’였다. 원래는 케틀러가 사망한 東總布胡同 서쪽 입구에 세웠으나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자 이를 ‘國恥’라 하여 패방 이름을 ‘公理

17) 肖鳳, 《冰心傳》(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2년 9월), 50~51쪽.

戰勝坊'으로 바꾸었고 이듬해에 이 폐방을 중산공원으로 옮겼다. 1953년 아주 및 태평양 지구 대표들이 북경에서 평화회의를 개최할 때 다시 '保衛和平坊[郭沫若 글씨]로 바꾸었다.

이외에도 중산공원의 문화공간으로는 中山堂, 민중도서관, 사진관, 瑞記飯店, 閩菜館, 四宜軒, 來今雨軒, 長美軒 등의 식당과 찻집 등이 있었다.

III. 황색 속의 녹색 문화공간 체험

1. 신문화운동과 중산공원 來今雨軒 집회

신문화 운동 후 북경의 지식인들은 주로 대학, 출판사, 社團, 會館, 서점 [琉璃廠], 신문사, 광장, 공원, 茶館, 胡同[지식인 거주지 및 八大胡同 등의 靑樓] 등 문화공간에서 지식을 발견, 생산, 전파하였다. 1920년대 초기 이전에 중앙공원, 廠甸, 13릉, 陶然亭 및 장성은 '신지식인'들이 가장 자주 다니고 자주 서사했던 곳이다.¹⁸⁾

그중에서 공원도 지식 생산 담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화공간이다. 북경의 지식인들은 이곳에서 자주 모였으며 간행물의 편집도 이곳에서 하곤 하였다. 다음은 중산공원에서 거행된 각종 집회나 시위 등에 관련된 과거 기억의 뭉치들이다.

1919년 6월 陳獨秀、高一涵이 중산공원에서 전단지 <北京市民宣言> 살포.¹⁹⁾

1921년 1월 4일 문학연구회 창립대회 개최

1921년 9월 14일 李大釗, 소년중국학회에서 개최한 담화회에 참석

1921년 11월 13일 소년중국학회에서 常會를 열어 鄧中夏가 四川 강연 현황과 감상 보고.

18) 陳平原·王德威 편, 《北京: 都市想像與文化記憶》(北京大學出版社, 2005) 242쪽.

19) 任建樹 저, 《陳獨秀傳(上)》(上海人民出版社, 1995년 4쇄) 156쪽.

- 1922년 11월 19일 北京大學、法政專科學校 등지의 학생 50여 명이 學生讀書會 董事會議 개최[지도교수 李大釗]
- 1923년 여름방학에 淺草社 회원들이 茶會 거행
- 1923년 9월 9일 북경 20여 개 학교의 대표들이 소련 대표 카라한 환영대회 개최
- 1924년 6월 6일 북경 각계 군중들이 중앙공원과 북경대학에서 중、소 수교 경축대회 거행
- 1924년 11월 24일 북경반제국주의대연맹 개최
- 1926년 3월 12일 국민당 우파들이 손중산 서거 1주년 기념식 거행
- 1930년 7월 30일 재정부 印刷局工會에서 주관하여 中山堂에서 신문기자 초대회를 거행하여 임금 삭감,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탄압을 성토했고 언론계의 원조를 호소.
- 1930년 溥儒가 중산공원 水榭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上方山志》(10권) 간행
- 1931년 6월 徐志摩와 楊振聲이 중산공원에서 노닐다가 한밤중에 돌아왔다.
- 1931년 9월 23일 北平 각계 항일구국계에서 中山堂에서 일군의 침략에 반항하다가 사망한 동북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집회 개최.
- 1938년 9월 19일 來今雨軒에서 중일미술가합동유화전 거행
- 1939년 4월 15일~17일 화가 郭柏川(1901~1974), 來今雨軒에서 제1차 작품전시회 거행
- 1940년 6월 8일~10일 郭柏川, 來今雨軒에서 제2차 작품전시회 거행
- 1941년 5월 17일~19일 郭柏川, 來今雨軒에서 제3차 작품전시회 거행
- 1942년 9월 郭柏川, 來今雨軒에서 제4차 작품전시회 거행
- 1943년 6월 5일~7일 郭柏川, 來今雨軒에서 제5차 작품전시회 거행
- 1946년 2월 24일 국민당 북평시 당부 및 群統局 특무들이 주도하여 소위 ‘東北旅平學生’들이 ‘張莘夫추도회’ 및 ‘동북민중청원대회’를 열어 군중을 동원하여 반소반공 기도.
- 1946년 4월 21일 ‘중산공원 음악당 사건’ 발생
- 1949년 6월 6일 北平工業展覽會가 來今雨軒에서 개막식 거행[북경시장 葉劍英 연설]
- 1949년 8월 1일 저녁 7시 북평시인민정부에서 음악당에서 ‘八一’ 建軍節 기념식 거행[3500여명 참가]

위의 내용을 읽어보노라면 시위, 집회 장소로서의 공원의 면모를 보여주는 기억들이다. 이러한 잊혀진 기억을 복원하면, 중국현대사의 일부는 어쩌면 ‘공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공원은 지식인들의 의사소통, 사교의 장이었다. 5·4시기 陳獨秀, 魯迅, 周作人, 錢玄同, 劉半農, 胡適, 徐志摩, 鄭振鐸, 郁達夫, 俞平伯, 許地山, 王統照, 孫伏園, 耿濟之, 許欽文, 蔣夢麟, 臺灣 출신 張我軍(1902~1955), 러시아의 맹인시인 에로센코(1889~1952)²⁰, 그리고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곳을 ‘遊歷’하였다.

노신의 일기에는 1915년부터 1926년 8월 달에 북경을 떠나 厦門으로 가기까지 중앙공원을 76번이나 찾았다. 물론 노신 자신이 일기에서 기록을 누락시켰다면, 이보다 훨씬 많이 찾았을 것이다.

노신의 마지막 중산공원의 행보는 노신이 모친의 병문안을 왔을 시기인 1929년 5월이었다. 5월 25일 노신이 許廣平(1898~1968)에게 쓴 편지에서 “중앙공원은 어제 개방하였으나 오후에는 나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풍경도 거의 예전과 같았소. 작약은 이미 피었다가 시들고 있는 중이요(中央公園昨天是開放的, 但到下午爲止, 游人不多, 風景大略如舊, 芍藥已開過, 將謝了.)”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노신이 북경에서 그토록 자주 갔었던 중앙공원과의 마지막 인연이었다.

허흠문을 우연히 만나 그를 중앙공원으로 불러 차를 마셨다.²¹⁾

당시 노신은 오전엔 북경사범대학에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북경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노신은 북대 第一院 문과의 가장 큰 교실에서 강의하였는데, 방청생들이 많은 관계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 서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열강하였다. 노신은 오후에 수업에 끝나면 沙灘→北池子→東華門→南池子→天安

20) 周作人, 《周作人日記》 1922년 4월 8일자

21) 魯迅, 《魯迅日記》 1924년 5월 30일(토요일). 遇許欽文, 邀之至中央公園飲茗.

門을 거쳐 中央公園의 長美軒이나 來今雨軒에 들러 차를 마시곤 했다.

다음 글은 노신의 강의를 방청했던 許欽文(1897~1984)이 노신의 초대
를 받아 중앙공원에 갔던 이야기인데, 당시 공원의 풍속도를 보는 듯하다.

원래 노신 선생이 나를 먼저 보았다. 내가 자리에 앉자 먼저 얼굴의 땀
을 훔쳐내고 이어서 차를 몇 모금 들이켰다. 노신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으로 앞에 놓인 신문을 들어 펼쳐 들여다보았다. 당시 공원 안에는
신문팔이가 있어 신문을 넣은 푸대를 메고서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찻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암전히 앉아있는 지식인 차림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의 다탁 위에 놓았다.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떠나가서는 다시 푸대
에서 신문 꾸러미를 꺼내어 들었다. 그 신문 몽치 꾸러미 중에는 북경에서
출판된 신문이외에도 상해의 《신보》, 《신문보》와 천진의 《익세보》
등이 있었다. ……

노신 선생은 집에서 북경에서 출판되는 《신보》와 석간신문 한 부를
구독하였지만 다방면으로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는 늘 중앙공원으로
가서 차를 마시곤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가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나서 조용하게 휴식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비교적 큰 이유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무실도 서
단패루 근처에 있어 잠시 쉬고 난 후에는 그곳으로 가서 공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²²⁾

22) 許欽文, <來今雨軒>, 《許欽文散文選集》(高松年、龍淵 編, 百花文藝出版社, 1995년 9월) 175~177쪽. 原來魯迅先生先望見我了。我坐下以後, 先擦去頭臉上的油汗, 接着連口喝茶。魯迅先生不作聲, 隨手拿起擺在他面前的報紙來翻閱。當時公園裏有這樣一種賣報紙的人, 背着裝報紙的包袋, 一手擎着一迭報紙, 在茶攤裏轉來轉去, 見到靜坐着知識分子模樣的人, 就把那擎着的一迭報紙放到他們面前的茶卓上去, 不說一句話, 顧自離去, 再從包袋裏取出一迭報紙來擎着。那迭報紙中, 除北京出版的報紙以外, 有上海的《申報》、《新聞報》和天津的《益世報》等。……

魯迅先生家裏只訂閱北京出版的《晨報》和一份晚報, 但要多方靈通消息, 他常到中央公園裏去喝茶, 恐怕這也是個原因。自然, 他講課和給學生解答問題以後, 需要靜靜地休息一下, 是個較大的原因。而且他辦公的機關就在西單牌樓附近, 休息一下以後, 還可以到那裏去辦些公事。

공원은 노신에서 있어 각종 여론을 수집, 분석하여 잡감문을 비롯한 문학창작의 공간 모티브가 되었다. 그의 잡감문을 읽다보면 수많은 신문 이름과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중화민국 14년 10월 27일, 즉 음력 9월 9일 국민들은 관세자주권을 주장하면서 거리에 나가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순경들은 도로를 막아서 심지어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쌍방 간에 “서로 사상자가 있다.”고 한다. 이튿날의 신문(《사회일보》, 《세계일보》, 《여론보》, 《익세보》, 《순천시보》 등)의 기사에도 이러한 말이 실렸다.

“부상당한 학생 오흥신(제일영문학교)은 두부에 칼을 맞아 중태이다. 주수인(북대 교원)은 이빨을 다치고 앞니가 두 개 나갔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

이것도 부족해서 그 이튿날 《사회일보》, 《여론보》, 《황보》, 《순천시보》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중 시위한 사람 중에 북대 교수 주수인(즉 노신)의 앞니가 두 개 빠졌다. ……”²³⁾

노신은 시민의 ‘알 권리’보다는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언론계의 작태에 분개하면서 이와 같은 신문 기사를 작품 속에 슬쩍 삽입하여 독자들로부터 그의 호소력을 끌어당기고 있다.²⁴⁾

23) 魯迅, <從鬚鬚到牙齒>, 《語絲》 1925년 11월 9일 제52기. 李春林 等編, 《語絲選粹》(遼寧大學出版社, 2001) 123쪽 재인용. 中華民國十四年十月二十七日, 即夏曆之重九, 國民因爲主張關稅自主, 游行示威了。但巡警却斷絕交通, 至於發生衝突, 據說兩面“互有死傷”。次日, 幾種報章(《社會日報》, 《世界日報》, 《輿論報》, 《益世報》, 《順天時報》等)的新聞中就有這樣的話: “學生被打傷者, 有吳興身(第一英文學校)。頭部刀傷甚重……周樹人(北大教員)齒受傷, 脫門牙二。其他尚未接有報告。……”
這樣還不够, 第二天, 《社會日報》, 《輿論報》, 《黃報》, 《順天時報》又道: “……遊行群衆方面, 北大教授周樹人(即魯迅)門牙確落二個。……”

24) 그러나 丁玲의 경우는 소설 화자의 무료함과 심심함을 보여주기 위해 신문 광고를 소설 속에 삽입시켰다. <莎菲女士的日記>: “報來了, 便看報, 順着次序看那大號字標題的國內新聞, 然後又看國外要聞, 本埠瑣聞……把教育界, 黨化教育, 經濟界, 九六公債盤價……全看完, 還要再去溫習一次昨天前天已看熟了的那些招

6시에 시내로 들어와 장, 도와 공원에서 밥을 먹었다.²⁵⁾

호적이나 노신의 일기에 그냥 ‘공원’이라 표기한 것은 모두 ‘중앙공원’을 가리킨다. 당시 북경 시민의 구어로 ‘공원’은 중앙공원을 가리켰고, 北海公園을 말할 경우에는 ‘공원’이란 두 글자를 빼고 습관적으로 ‘北海’라고 말했다.²⁶⁾

호적도 지식인과의 교제 장소로 공원을 선호했던 사람이다. 호적 일기에 의하면 그가 공원에서 아는 사람과 우연하게 만날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이들은 아예 공원에서 약속 장소를 정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²⁷⁾

북경에 거주했던 사람치고 푸르른 하늘 아래 기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궁전, 기타 공공건축을 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화원과 공원 안에는 몇 백 년 전에 심은 고송이 있다.²⁸⁾

위의 글은 황색과 녹색이 찬란하게 조화를 이루는 북경의 모습을 언급한 蔣夢麟의 글이다.

어느 날 蔣夢麟은 한 노교수와 함께 북경 중앙공원의 측백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는데, 노교수가 그에게 한 말은 당시 어수선한 정황과 지식계의 보편적인 심리상태를 대표해주고 있다.

男女, 編級新生的廣告, 那些爲分家產起訴的啓事, 連那些什麼六〇六, 百靈機, 美容藥水, 開明戲, 眞光電影……都熟習了過後才懶懶的丟開報紙. 自然, 有時會發現點新的廣告, 但也除不了是些綢緞舖五年六年紀念的減價, 恕計不周的計聞之類”

25) 《胡適日記》 1921년 7월 3일. 六時, 回進城, 與蔣、陶在公園吃飯.

26) 鄧雲鄉, 《魯迅與北京風土》(河北教育出版社, 2004) 175쪽.

27) 王曉漁 著, 《知識分子的“肉戰”：現代上海的文化場域(1927~1930)》(上海人民出版社, 2007) 37쪽.

28) 蔣夢麟, <迷人的北京>(《西潮·新潮》 岳麓書社, 2000) 180쪽. 在北京住過的人, 很少人會忘記蔚藍天空下屋瓦閃閃發光的宮殿和其他公共建築。頤和園和公園裏有幾百年前栽種的古松.

여기서도 시위, 저기서도 시위, 운동 시위뿐이야……어제도 수업거부, 오늘도 수업거부, 날마다 수업거부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이나 끝날까요? 새로운 정신이 이미 탄생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의 편안한 정신은 정말 사라진 것 같습니다.²⁹⁾

점심 식사 후 중앙공원으로 갔다. 왕여기, 장근이, 변지림 등과 만나 함께 광화루에 가서 과반 부런성의 희극을 들었다.³⁰⁾

광화루는 명대의 극장[戲樓]이다. 청대 吳長元이 집록한 《宸垣識略》(北京古籍出版社, 2001)에 “사루는 육시에 있는데, 명대의 거부 查氏가 세운 극장이다. 본 왕조에서는 광화루가 되었다. 거리 입구에 작은 나무간판이 있는데, 예전에는 ‘查樓’라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 건륭 경자년에 화재로 훼손되었다가 지금은 중건되어 ‘광화사루’로 쓰여져 있다(查樓在六市, 明代巨室查氏所建戲樓. 本朝爲廣和樓. 街口有小木坊, 舊書‘查樓’二字, 乾隆庚子毀於火, 今重建, 書‘廣和查樓’.)”라고 적혀 있듯이 이 극장은 원래 명말의 鹽商으로 거부가 된 查氏의 화원이었으나 나중에는 ‘查園’을 거쳐 廣和茶園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으며,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북경에 쳐들어오자 사씨는 상인 王善堂에게 매도하였다.

1906년에는 喜連成社 科班이 이곳에서 3년간 공연하였는데, 梅蘭芳(1894~1961)、周信芳(1895~1975)도 이 과반에서 배웠다. 1914년 이 과반이 광화루에 돌아왔을 때 이미 富連成 科班이 바뀌어 이곳에서 근 20년간 공연하였다. 1919년부터는 야간 공연을 시작하였고 1930년 전후로는 남녀의 합석이 허가되었다. 신중국 성립 후에는 확장을 거쳐 지금은 광화극장으로 그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9) 蔣夢麟, 《西潮》. 這裏鬧風潮, 那裏鬧風潮, 到處鬧風潮---昨天罷課, 今天罷工, 明天罷市, 天天罷、罷、罷. 校長先生, 你豫備怎麼辦? 這情形究竟要到哪一天才結束. 有人說, 新的精神已經誕生, 但是我說, 舊日安寧的精神倒真是死了.

30) 郁達夫, 《故都日記》 1934년 9월 2일. 飯後赴中央公園, 與王余紀、章靳以、卞之琳等會, 同上廣和樓聽科班富連成的戲

대중문화는 불[구경]거리와 들을 거리의 대량생산으로부터 출현하였다. 신문, 연극, 영화, 음악, 사진, 각종 전시회 등은 도시민들에게 자극적인 시각문화와 청각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즉 이들은 각종 이미지를 통해서 제반 사회와 의사소통하게 된 것이다. 중산공원 앞은 동서로 長安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서쪽은 고궁,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기차역, 그리고 그 아래가 前門 밖의 상업, 오락문화의 거리가 펼쳐져 있어 구경꾼, 산보객을 호객한다.

이러한 지식인의 문화공간으로써 특특히 그 역할을 해왔던 공원은 지식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곧바로 다양한 문학의 장에 출현하게 된다.

2. 문학 작품 산실로서의 공원

이러한 공원은 수많은 지식인들의 문화소통의 장이었으므로 이곳은 바로 문학생산의 온실이 되었다.

1921년 1월 4일에는 문학연구회 창립대회가 북경 중앙공원 來今雨軒에서 개최되었다. 문학연구회의 ‘선언’은 1920년 11월 28일 周作人이 초안을 잡고³¹⁾ 魯迅도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는 하였으나 당시 북양정부에는 소위 ‘文官法’이란 것이 있어서 각 부의 관리들이 사회적인 각종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노신은 이에 가입하지 못했다.³²⁾

이곳에서는 또한 문학 편집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하였다. 1923년 여름방학 때에는 淺草社의 성원 10여 명이 중앙공원에서 茶會를 열어 林如稷이 천초사의 상해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 모임에는 游國恩, 李開先, 馮文炳, 高世華, 陳焯謨, 羅石君, 韓君格, 馮至 등이 참가하였다. 북경대학 교수들도 《新青年》, 《每周評論》 이외에도 북경에서 몇 종의 잡지를 냈다. 그중에 《現代評論》은 胡適 등이 간행한 것이고³³⁾,

31) 周作人, 《周作人日記》

32) 茅盾, 《我走過的道路(上)》 165쪽.

33) 1927년 3월 제138기를 시작으로 상해로 거점을 옮겨 발행.

다른 하나는 《어사》(주간)이다. 1924년 11월 17일 북경에서 창간된 《語絲》는 周作人, 周樹人, 錢玄同, 劉半農, 郁達夫 등이 간행하던 잡지다. 호적과는 徐志摩, 陳源, 蔣廷黻, 周甦生, 陶孟和 등이며, 임어당은 어사과에 붙었다. 그들은 호적 일과를 ‘사대부과’고 불렀다. 모두가 정론문장을 잘 쓰던 사람이고 관료에게나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어사과는 두 주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中央公園 來今雨軒의 송림 밑에서 미팅을 가졌다. 來今雨軒은 1915년에 지어진 찻집으로, ‘來今雨軒’이란 말은 杜甫(712~770)의 시 <秋懷>의 첫 문장에서 따왔다.

가을에 두보가 장안 여행 도중 병들어 누었는데, 비가 오면 물고기는 좋으나 이끼는 떨어지고, 항상 수레와 말을 탄 손님이 그전에 비가 내리면 오더니, 지금은 비가 내려도 오지 않는다(秋, 杜子臥病長安旅次, 多雨生魚, 青苔及塢, 常時車馬之客, 舊, 雨來, 今, 雨不來).

어사과의 성원 중 주작인은 주편을 맡았기에 단골손님이었고 옥달부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그가 떴다하면 그 자리는 웃음바다였다고 한다.³⁴⁾

그리고 노신일기를 읽다보면 1926년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³⁵⁾ 한 달여에 걸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였다. 그 당시 노신은 段祺瑞(1865~1936) 정부의 정치적 박해, 경제적 곤궁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 기간에 그는 네덜란드 작가 에덴(Frederik Willem van Eeden: 1860~1932)의 《작은 요하네스(小約翰)》(원명: De Kleine Johannes)를 번역하였다. 당시 齊壽山(1881~1965)은 교육부에 의해 중앙공원으로 파견되어 고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중앙공원에서 그와 함께 번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역서는 이후 1927년 5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광주에서 초역을 정리하여 1928년 1월에 未名社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이는 순

34) 工燾·張振玉 역, 《林語堂自傳》(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115~118쪽.

35) 그 기간 중 7월 12일, 19일, 21일, 26일과 8월 1일, 2일, 3일, 8일, 9일은 중앙공원에 가지 않았다.

전히 중앙공원과 더불어 결실을 맺은 역작이라 하겠다.

3. 녹색지역: 한인 漫步客 & 산책자

한국인이 언제부터 북경에 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왔을까? 통계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북경 주변에 ‘高麗營’이나 ‘渤海鎮’이라는 지명이 있는 걸로 보아 원대 전후로 집단 거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명, 청대에는 ‘연행사’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당대 지식인들이 燕京명을 밟고 수많은 ‘연행록’을 남겼다.

근대에 들어와서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중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대부분 암울한 국내 현실을 참다못해 중국 대륙을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삼고 망명한 애국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북만, 남만, 북경, 천진, 상해 등지로 흩어져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중 李會榮(1867~1932), 曹成煥(1875~1948), 金昌淑(1879~1962), 申采浩(1880~1936), 金星淑(1898~1969), 張志樂(金山: 1905~1938) 등은 북경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종사하였고 아울러 유학생의 신분으로 수많은 한인 청년들이 북경을 밟기도 하였다. 그래서 북경에서도 점차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북경의 경우, 1921년 말 朴健秉(1892~?), 申八均(1882~1924), 金正默 등이 조직한 한인 교민단체 北京韓僑俱樂部³⁶⁾, 1923년 김성숙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젊은 승려 5명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여 民國大學에 적을 두고 조직한 高麗留學生會 등을 들 수가 있다. 1930년 2월 16일 오후 1시에는 北平의 조선인 유학생회 주최로 華北大學 대강당에서 北平韓僑大會를 개최하고 국내 학생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와 결의가 있었다(500여명 참가). 徐日甫(1886~1928)가 북경항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에도 유학생회 주최로 북경대학 제2원에서, 북경천도교傳教室(法通寺

36) 1924년에 韓僑自治會로 개편

72號 소재) 주최로 축하회를 가진 바 있다.

《동아일보》 1934년 3월 5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갔다.

중국 북평, 상해 등지에서 在留하는 金明水、奎昌根、安偶生、丁來東、
金光洲 등이 在中國朝鮮人文藝協會를 발기하다. 재중국조선인문예협회의
설립 목적은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각국 문학의 연구 및 국내문단에 소개,
한국문학의 공동 연구, 재중 문인의 상호 연락 등이다.³⁷⁾

(1934년 2월 20일 결성)

이 모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진 적이 없으므로,
그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본고에서는 Walter Benjamin이 Baudelaire(1821~1867)의 작품을 통
하여 파리(Paris)를 연구할 때 정립한 개념을 원용하여 복잡한 도시를 산
보하며 도시의 정신을 체험하고 도시의 전통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태도
를 관조한다는 ‘산보객’이란 개념을 따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보는 움직임
이며 주체의 상태를 강조하는 현대적 도시 구경 방식에 대한 약칭이다.³⁸⁾

(1) 중앙공원에서 바라본 孫文의 국장

1930년에 북경 民國大學 영문과를 졸업한 한 한국 유학생이 있었다. 그
이름은 丁來東(1903~1983)이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중문학도에게는 생
소한 이름이겠지만, 1980년대 만해도 중국 현대문학 관련 레포트를 쓰려
면 세 권짜리 그의 전집³⁹⁾을 찾곤 하였다. 당시 정래동이 다니던 민국대
학은 원래 醇親王府 南府 자리(宣武門外 儲庫營)였고 당시 북경은 신군벌
閻錫山(1883~1960)의 천하였다. 이 대학은 1917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

37) 동아일보 1934년 3월 5일자 기사

38) 바네사 R. 슈와르츠 지음/노명우·박성일 옮김, 《구경꾼의 탄생》(마티, 2006)
53쪽.

39) 정래동, 《정래동전집(1~3)》(금강출판사, 1971)

한 사립대학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오사운동 당시 학생수는 3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유학생한테 민국대학은 아나키스트의 아지트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는 대학 재학 중에도 <朱湘과 中國詩壇>(1925년) 등의 논문을 국내에 발표하여 중국 신문학 소개에 앞장섰다. 다음은 정래동이 대학 졸업 1년 전에 본 손문 국장의 목격담이다.

1929년, 가장 큰 사건 중의 한 가지는 故 孫文 선생의 國葬이었다. 손문 선생은 1925년 3월 12일 북경 協和醫院에서 서거하였다. 그때 매우 웅장하게 國民黨의 선전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國共의 투쟁도 심하여졌었다. 初殯을 中央公園(후에 손문의 호를 따서 ‘中山公園’으로 개칭하였음)에서 하고, 일반에게 그 시체를 관람시켰다. 棺의 上蓋를 유리로 만들어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數萬 幅의 輓詞가 공원 전부에 진열되었고 녹음한 그 동지들의 연설이 방송되었으며 弔客이 매일 수만 명이였다.

그 얼굴을 평온하게 잠자는 것 같았으며 펍 인자한 모습이였다.

약 2주간이나 그와 같이 중앙공원에 안치하였다가 碧雲寺에 移置하고 1929년 國民政府가 전 중국을 통일한 후 국장으로 南京 中山陵에 이장하였던 것이다.

서거 때 협화의원에서 증산공원으로 영구가 나갈 때는 顏惠慶 등 명인들이 상여를 메었고, 그 중에는 소련 대사 카라한도 끼어 있었다.

그때 나의 느낀 것은 장례식보다는 국민당의 하늘을 뚫을 것 같은 발발한 기상이었다.

그러나 그 후 30여 년의 오늘날에 와서 위경에 빠져 있는 국민정부를 보면, 역사의 전환이 얼마나 빠른 것인가 하고 한탄할 때도 있다.⁴⁰⁾

중국의 국부 손문 선생은 간암이 들어 양의사와 중의사를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한 채, 1925년 3월 12일 오전 9시 協和醫院에서 험난한 혁명 생애를 향년 59세로 종식하였다.

40) 정래동,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

국장 절차

- 1925년 3월 19일 영구를 中央公園 社稷大殿으로 운구. 운구 행렬 10만 명.
 1925년 4월 2일 西山 碧雲寺로 이동. 운구 행렬 수 십 만 명.
 1929년 5월 26일 中山陵으로 이동, 香山에서 前門역까지 운구 행렬 30만 명.
 1929년 5월 28일 손문의 유체 南京 도착.
 1929년 5월 30일 公祭 거행.
 1929년 6월 1일 安葬.

이렇게 손문은 사망하면서 안장되기 까지 무려 4년 3개월간을 이쪽저쪽 떠돌아다니면서 군벌들의 온갖 등쌀에 시달려 잠들지 못하였다. 정래동은 이 장례식 장면을 목격한 후 손문 서거 이후 30년간의 국민정부를 회고하면서 빠른 역사의 전환을 개탄하였다.

(2) ‘만보객’의 중앙공원에 대한 기억

무엇보다도 북경의 초여름이 우리에게 풍부한 정서를 안겨준 것은 그 울창한 수목이었다. 가두를 푸른 천막처럼 가려주고 있는 버들, 플라타나스, 아카시아 나무들의 우거진 그늘, 고궁이나 공원을 찾아들면 수백 년을 묵은 두 세 아랍드리의 고목들, 특히 槐木들이 가득히 서있는 古寂! 북경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大景이었다. 나는 북경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만 나면 고궁과 공원 안을 소요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 우거진 녹음 속을 걷고 있으면 스스로 환상적이 되고 그래서 나는 가끔 셰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연상하면서 몽상에 잠겼던 것이다.

그렇게 북경 신록의 계절이 우리들을 환영해준 셈이다. 초여름철의 북경, 거리와 공원들을 뒤덮고 있는 수목의 신록은 푸른 비단옷같이 단장을 하여 북경의 모습은 더욱 고상해지고 풍부한 것이었다.⁴¹⁾

카프 맨원 검거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白鐵(1908~1985)은 <비에의 성사>⁴²⁾를 발표하여 감옥에서의 비참한 나날을 술회하였다. 비탄, 수치심의

41) 백철, <내 문학적 생애와 주변의 현실>(《세대》)

증폭, 절망감의 확대, 자살의 경지에서 어느 날 그는 “살어야 한다! 生!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진리다!”라고 외친다. 전향, 친일의 길을 걷던 그는 1942년 매일신보사 북경지사장 겸 북경특파원으로 파견된다. 그가 북경에 있는 동안 작품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문학의 이상성>⁴³⁾, <국민문학의 일 년>⁴⁴⁾ 정도였다. 그 무렵 崔載瑞(1908~1964)가 더 강도 높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았듯이 앞으로 전개될 조짐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긴박감을 알아챘으리라!

백철은 잘 알려진 대로 민간 신문이 모조리 사라진 조선 언론계에서 총독부 기관지 ‘賣身’으로 불리던 《매일신보》의 문화부장을 맡아 무소불위의 역량을 과시하였다. 그는 1939년에 잠시 중국을 시찰한 데 이어 1942년 3월 《매일신보》 북경지사장 겸 특파원으로 부임하여 1945년 8월 2일 귀국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북경에 거주하였다. 백철은 1944년에 북경에 온 여류시인 노천명, 유행가수⁴⁵⁾ 南仁樹(본명 姜文秀, 1918~1962), 張世貞(1921~2003) 등을 만났다. 노천명은 당시 매일신보 문화부에 근무하던 기자 자격으로 휴가를 받아 놀러왔다가 3주간의 휴가 기간이 지나고서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바람에 3개월이 지나서 백철이 여비까지 마련해주어 보냈다고 전해진다.

위의 글에서 백철은 ‘만보객’의 시선을 수목→녹음→풍부한 정서→환상[몽상]으로 옮기고 있다.

시내의 공공 유원지만 들어도 中山공원, 북해공원, 中南海공원, 太廟, 경산 등을 들 수 있는 중, 북평에 모여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시골 사람이라, 중산공원 등으로 가기를 좋아하고, 물가에 시원하고 바람이 맑고 사람

42) 동아일보 1935년 12월 22~27일 연재

43) 《東洋之光》 1942년 6~7월호

44) 《국민문학》 1942년 11월

45) 일제강점기에 중국을 모티브로 작곡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 그중 남인수에겐 <울리는 만주선>(1938), <안개 낀 상해>(1939) 등이 있고, 장세정에겐 <중국 아가씨>(1940), <山東 아가씨>(1941) 등이 있다.

이 적어서 조용한 중남해 같은 곳으로는 비교적 모여들지 않는다. 흔히 시골 사람이 변화한 도회의 거리를 동경하고 자연의 시내, 자연의 풀밭, 자연의 산을 그리 귀중하게 알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산공원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시며, 오고가는 사람들의 相貌를 품평하고, 유행 의복을 논의하고 쓸데없는 환상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그리 흥미 없는 일은 아니지마는, 이것을 만약 밝은 달 밤의 호수같이 넓은 못가를 거닐며 버드나무 그림자로 수놓은 길 위에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가는 한적한 감회에 비겨 본다면, 참으로 天壤의 차가 없지 않다.⁴⁶⁾

북경은 이민 도시이다. 북경이 수도로 설정되어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로 입주하였다. 북경의 일부 거리 이름을 외지의 지명으로 명명한 예가 보인다. 蘇州胡同(東城區), 蘇州街(海澱區), 鎮江胡同(동성구, 崇文區), 陝西港(선무구), 山西街(선무구), 山西營(충문구, 선무구), 四川營, 河南新營(海澱區) 그리고 安徽義園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명들은 辛亥革命 이후 국민정부 시기에 개명한 天津이나 上海의 거리 이름과는 달리, 주로 명, 청 시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들이다. 그리고 북경의 외지 지명은 이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대 成祖가 북경으로 천도할 때 관리, 귀족, 가족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북경으로 전입시켰다. 이후 대규모의 이민은 세 번 있었다.⁴⁷⁾

북경은 비록 ‘도시’라고는 하지만 이는 유럽의 ‘도시’와는 달리 ‘도+농’의 성격이 혼재된 ‘연합’ 도시이다. 그러므로 북경으로 이주한 ‘시골’ 사람들은 좀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볼거리[스펙터클]를 찾아 시각과 청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정래동은 바로 이러한 점을 포착하여 시골사람-중산공원-번잡/도시사람-중남해-한적이란 양대 구도로 나누어 본 것이다.

46) 정래동, <녹음의 북평>(《북경시대》)

47) 이에 대해서는 張燕來, 《北京地名的語言學考察》(北京語言文化大學 現代漢語 전공 석사논문, 2005년 5월) 24~25쪽 참조.

더구나 中央公園 속 몇 백 년 묵은 이름드리 늙은 槐樹 그늘 밑에서 수백 개나 되는 藤의자가 그득 차게 들어앉아서 향기 높은 차를 마시며 유유히 이야기하는 정취는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⁴⁸⁾

중앙공원 개방 당시[1914년] 넓이 약 6만 7천 평에 달하는 경내에 심겨진 고목의 숫자는 무려 천 그루에 달했다고 하며⁴⁹⁾, 위의 趙容萬(1909~1996)의 소설에서도 그야말로 ‘樹海’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만보객’으로서 조용만의 눈에 비친 중앙공원은 매우 여유롭고 아름답기만 하다.

(3) 중앙공원에서 李陸史와 白鐵의 어색한 조우

44년 이른 가을의 일이라고 기억된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먼저 오고 얼마 뒤에 일본헌병대의 사복이 지사로 나를 찾아왔다. 와서 하는 말이 실은 헌병대로 출두를 시키려고 하다가 신문기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장을 나왔다고 했다. ……

“무슨 조사할 일이라도 있어서 오셨나요?”하고 물었더니, “그래요, 당신한테 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이는 대로 잘 대답을 해줘야겠소이다.”하고 사건이란 것을 끄집어 낸 것이 시인 이육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육사란 사람을 알지요?”

“네 압니다. 그런데요…….”

하고 물었다.

“꽤 친한 사람이라면서요?”

“아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문단 관계로……. 그가 시를 썼으니까요.”

사실 나는 육사와 가깝게 사귄 사이는 아니었다. 내가 대답한 그대로였다.

“그런데 북경에서도 자주 만났다면서요?”하고 넘겨짚는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48) 조용만, <북경의 기억>(《문장》 제3권 제1호, 1940년 1월)

49) 安藤更生 편, 《北京案内記》(北京 新民印書館, 1942년 8版) 60쪽.

“자주 만났다고요? 그런 일 없는데요. 꼭 한 번, 그렇지요, 작년 봄[1943년 봄]에 中山公園에 나갔다가 거기서 꼭 한 번 우연히 그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였다. 그 전해 그러니까 43년 봄에 우리 부부와 福田公司의 장 씨 부부와 어린애들과 함께 중산공원에 나갔다가 등나무 그들의 등 의자에 앉아서 수박씨를 까먹으며 중국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쪽 편에서 낫이 익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왔다. 이육사였다.

“이게 웬일이요? 언제 여길 오셨소?”하고 반겼더니

“나 꽤 오래 됐습니다. 백형이 오셨단 이야길 전해 들었습니다. 신문사 지사를 맡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면서 그렇게 내 일을 탐탁하게 생각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좌우간 우리 좀 앉읍시다.”

하고 그를 끌어서 우리 좌석에 앉히고 내 아내와 장 씨 가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육사에 대해선 “우리 시단의 특이한 존재”란 말을 써서 소개를 했다.

“그런데 북경에 오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설마 시를 쓰려 북경까지 오신 것은 아닐 꺼구……. 무슨 사업이라도……?”

하고 이야길 다시 시작했더니 그는 별로 화제에 흥미가 없었는지 내키지 않는 어조로 자기 설명을 하고 있었다.

“백형이 아다시피 내가 본시 여기 북경대학엘 다니지 않았소. 그래서 북경이 그렇기도 해서 여기 와 모교에서 무슨 사무일이라도 맡아보고 싶어서 학교와 접촉을 해봤는데 이런 판국에 학교 자체의 내용이 엉망이고 해서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딴 데로 어떤 직업을 구해보다가 안되면 도로 조선으로 나가렵니다…….”하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보기에는 육사의 인상은 옛날대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 올백으로 빗어 넘기고 빨간 넥타이를 매고 했으나 어딘지 얼굴이 초췌하고 해서 혹시 가슴이라도 나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빛이 창백하였다. 우리는 곧 헤어졌다. “하여튼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한번 놀러와 달라고 이야길 했다.

북경에 와서 육사를 만난 것은 그때가 꼭 한번이다. 그 뒤에 육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고 물론 찾아오지도 않았다. 내가 《매일신보》의 특파원으로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을 줄 안다. “그런데 내가 자주 육사와 만나다니……?” 나는 곧

사복이 내게다가 유도심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⁵⁰⁾

위의 회고록에서 백철은 가족들과 함께 여유자적 중산공원에 나갔다가 머리를 울백으로 넘기고 빨간 넥타이를 맨 신사 李陸史(1904~1944)를 1943년 봄에 만났다고 한다. 이육사는 1943년 4월에 북경으로 와서 重慶과 延安행 및 국내 무기 반입을 계획 세우다가 그해 7월에 모친[許吉]과 만형 李源祺의 소상에 참여하려 귀국하였고 늦가을[혹은 초가을]에 검거되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북경으로 압송되어 북경주재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¹⁾ 이육사는 1944년 1월 16일 새벽에 순국하였다.

그렇다면 백철은 이육사가 북경에 오자마자 우연히 만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산공원에서 무언가를 고뇌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짜고 있을 이육사를 마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형사가 백철을 찾아와 신문한 것은 1944년 가을이다. 분명 이육사가 사망한 이후인데도 형사나 백철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백철은 국내에 들어와서야 이육사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한다. 재북경 일본기자구락부에 드나들고 《매일신보》의 북경지사장을 지냈던 백철이 이육사의 죽음을 정말 몰랐을까? 백철은 이육사의 입을 통하여 육사가 北京大學⁵²⁾에 다닌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

(4) 망명객의 북경 체험

이튿날 밤에 북경에 도착. 친구의 집을 몇 곳 찾으니 모두 불행하게도 주인 부재중이었다. 여관 주인은 모두 스파이라 믿을 수 없다고는 하나 하

50) 백철, <내 문학적 생애와 주변의 현실>(《세대》)

51)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평전》(지영사, 2000) 214쪽.

52) 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증해볼 필요가 있다. 조지훈이 쓴 안동의 '이육사 시비'와 《한국문예사전》(어문각, 1991) 등에도 이육사가 북경대학 사회학과를 다닌 것으로 되어있다.

는 수 없이 前門 밖의 東方飯店에 투숙했다.

일부러 밤 11시에 들어서 아침 7시에 나오니 숙박인 명부에 가성명이야 기록했지만 놈들에게 보고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여관 客主가 밀정이라 할지라도 조사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아침 7시에 여관을 나온 부부는 종일 東安시장, 北海공원, 景山, 中山公園으로 인력거 타고 오락가락해서 하루해를 보냈다.⁵³⁾

한인으로서 북경 생활 나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독립투사 靑雷 이강훈(1903~2003)이 1932년 설달 그믐날 북경에 도착하여 정양문 앞 第一賓館에 투숙하려고 했지만 조선인에게 방을 줄 수 없다며 여관주인에게 쫓겨나야 했고 그 이튿날, 즉 1933년 설날 民國大學에 재학 중인 丁來東, 吳南基, 鞠淳燁 그리고 中國大學에 다니던 卞德出을 찾아 나섰으나 형사들이 학교까지 따라붙어 미행할 정도였다. 이유는 당시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작은 일본인(小日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⁵⁴⁾

위 글의 김태준과 박진홍은 천신만고 끝에 북경을 탈출하여 1945년 4월 초순에 延安에 도착하게 된다. 사람들은 김태준 부부의 연안행을 두고 일제하 운동사상 최고의 낭만적인 연애 사건이라고 말하곤 했다.⁵⁵⁾

IV. 문학작품에 묘사된 중산공원의 이미지

주나라에서부터 청말까지 북경[薊, 幽州, 燕國, 廣陽郡, 燕郡, 范陽, 燕京, 南京, 析津府, 中都, 大都, 北京]이란 공간을 모티브로 묘사한 시들이 다수 전하고 있다.⁵⁶⁾ 주로 응수시, 공덕시, 영사시, 영물시, 회고시, 제벽시, 송

53) 김태준, <연안행>(《김태준전집·3》 보고서, 1998)

54) 이정식 면담/김학준 편집해설/김용호 수정증보,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김성숙, 장건상, 정화암, 이강훈의 독립투쟁》(민음사, 2005) 523~524쪽.

55) 안재성, 《경성트로이카》(사회평론, 2004) 347쪽.

56) 이에 대해서는 張還棼 주편, 《歷代詠北京詩詞選》(北京出版社, 1996) 참조.

별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신문화 운동 초기에는 시나 소설, 희곡을 막론하고 습작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대시와 소설 중에서 북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몇 편 선정하여 이들 문학 속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란이 지고 이어서 붉은 작약이 피었고, 노방의 이월람도 여전히 곳곳에 피어있다. 곳곳에 핀 것은 그리 희한한 것이 아니니, 이는 시골사람들이 늘 보던 꽃이라 한다.

나는 작약을 보러왔다. 이월람도 보았다. 사직단의 수백 년 되는 노송 앞에서 시골사람의 약점을 보았다.

牡丹過了, 接着又開了幾欄紅芍藥, 路旁邊的二月藍, 仍舊滿地的開着; 開了滿地, 沒甚稀奇, 大家兒都說這是鄉下人看的。

我來看芍藥; 也看二月藍; 在社稷壇裏幾百年老松柏的面前, 露出了鄉下人的破綻。

위의 시 <공원의 이월람(公園裏的二月藍)>에서 沈尹默(1883~1971)의 시선은 우선 봄철 중앙공원을 아름답게 수놓은 봄꽃에 다가간다. 그렇지만 이러한 꽃들은 시골 들뜰에 지천으로 깔려있기에 시골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 시골의 기억을 회상 시켜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의 시선은 이내 거대한 노송과 측백 나무에 가려진다.

중산공원의 불거리는 아무래도 고목과 꽃이다. 심운묵의 시에서는 모란, 작약, 이월람[난꽃의 일종] 세 종을 거론하고 있는데, 작약의 이종으로 ‘金帶圍’가 있다. 이 꽃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金帶圍’는 1919년에 조선의 釜山領事로 부임한 辛寶慈⁵⁷⁾와 ‘公園董事會’의 이사 賀雪航、董霍初 등이 부산의 중국영사관에서 옮겨다 심은 것이라고 한다.

57) <北京政府駐外使領人員年表(1919~1928)>에 의하면, 1919년 5월 10일자로 부산영사 柯鴻烈이 神戶영사로 전임하고, 5월 10일자로 辛寶慈가 부산영사로 부임하여 1926년 3월 4일자로 이임하고, 그의 후임으로 蔣道南이 부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宋代의 筆記類에서 기록한 것처럼 揚州 ‘金帶圍’의 품종과 똑같은 것이며, 꽃이 크게 피었다지만, 中山公園에 옮겨다 심으면서부터는 꽃이 그다지 번성하지 않았지만, 당시 북경에서는 유일무이한 귀중한 품종이었다.⁵⁸⁾

“啞! 啞! 啞!”	“각! 각! 각!”
隊隊的歸鴉, 相和相答,	무리지어 돌아오는 까마귀들이 서로 화답한다.
淡茫茫的冷月,	흐릿한 차가운 달은
襯着那翠疊疊的濃林,	그 짙푸른 숲을 돋보이게 하고
越顯得枝柯老態如畫。	나뭇가지 비추니 예전 모습 그림 같아라.
兩行柏樹, 夾着蜿蜒石路,	두 줄의 측백나무가 꾸불꾸불 돌길에 끼여 있고
竟不見半個人影。	좀처럼 사람 그림자 보이지 않네.
擡頭看月色,	머리를 들어 달빛을 바라보니
似煙似霧朦朧的罩着。	연무처럼 몽롱하게 뒤덮혔네.
遠近幾星燈火,	멀리 가까이서 보이는 몇몇 등불
忽黃忽白不定的閃爍	----노랬다 하겠다 하면서 정처없이 반짝인다.
格外覺得清冷。	유달리 차갑게 느껴진다.
鴉都睡了; 滿園悄悄無聲,	까마귀는 모두 잠들고 온 정원이 조용하여 소
惟有一個突地裏驚醒,	리 없다.
這枝飛到那枝,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 들리더니
不知爲甚的叫得這般淒緊!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가
聽他仿佛說道,	무엇이 이토록 처량하게 우는지 모르겠네.
“歸呀! 歸呀!”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돌아가라! 돌아가!”

俞平伯(1900~1990)의 시 <겨울밤의 공원(冬夜之公園)>의 시적 공간은 겨울밤 중앙공원 내부이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공간에서는

58) 鄧雲鄉, 《魯迅與北京風土》(河北教育出版社, 2004) 182쪽 참조.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 오로지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등지로 돌아오는 까마귀 떼와 이를 맞는 수목의 물리적, 수동적 소통이 있을 뿐이다. “숲이 무성하면 온갖 잡새들이 깃들기 마련이다(林子大了, 什麼鳥都有)”⁵⁹⁾ 그러다가 등지에 깃든 까마귀도 잠들고 나면 공원 안은 쥐 죽은 듯한 적막강산으로, 반짝이는 공원 밖과 대조를 이루며 공원 안에서는 더 차가운 이미지를 발산한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정적을 깨고 잠 못 이루고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처량하게 우는 새 때문에 공원 안은 다시 생물의 ‘소통’들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외에도 중앙공원을 묘사한 시로는 張我軍의 연작시 <游中央公園雜詩>(6수)⁶⁰⁾가 있다.

회색 흙먼지가 광무하는 푸른 하늘에 머리처럼, 해골처럼 전문의 성루가 우뚝 솟아 있었다. 청색 바탕에 흰 글자의 사각형은 마치 해골 얼굴의 구멍처럼 한없는 우울함이 비쳤다. 廉楓은 종전에 전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만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우울한가? 무슨 우울함이 있는지 딱히 뭐라 말하기 힘들다. 명릉의 石人、石馬, 공원의 공리전승비도 때때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어쨌든 가슴 속에 가득한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在灰土狂舞的青空兀突着前門的城樓, 像一個腦袋, 像一個骷髏. 青底白字的方塊像是骷髏臉上的窟窿, 顯着無限的憂鬱. 廉楓從不曾想到前門會有這樣的面目. 它有什麼憂鬱? 它能有什麼憂鬱. 可也難說, 明陵的石人石馬, 公園的公理戰勝碑, 有時不也看得發愁? 總像是有滿肚的話無從說起似的.)

徐志摩(1897~1931) 소설 <죽은 성(死城): 북경의 하룻밤(北京的一晚)>에서 주인공이 본 도시 북경은 죽은 도시[死城]이며 이에 온통 칙칙한 이미지로 점철된 잿빛 도시이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먼지가 석자나 쌓이고 비가 내리면 거리는 온통 진흙투성이다(無風三寸土, 雨天滿地泥)’라는

59) 張元(1963~) 감독의 영화 <東宮西宮>(1996)의 대사이다. 이 영화는 중산 공원에서 동성연애를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60) 《北京晨報》1925년 2월 21일.

말이 있듯이 당시 북경 거리는 건기에는 흙먼지, 우기에는 진흙투성이였다. ‘산책자’ 廉楓은 해골처럼 흉물스럽게 우뚝 솟은 前門의 성루를 보고는 한없는 우울함을 느낀다. 이처럼 우울한 감정은 공간이 이동되면서 명십삼릉 앞에 서있는 石人과 石馬, 그리고 중앙공원에 우뚝 서있는 ‘國恥’의 상징물인 ‘공리전승비’로 옮겨져 더욱 비애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모집의 대문을 떠나서 두 대의 인력거를 잡아타고 중앙공원으로 갔다. 때는 이미 초봄이었으나, 북방의 기후는 더디 따스해졌다. 따라서 노방의 버드나무는 아직도 새싹이 돋지 않았고, 복사꽃도 작은 꽃술만 달려있을 뿐이다. 최소한 보름 이후에나 필 전망이다. 중앙공원에 도착했을 때 문앞에 수레와 마차는 드문드문 다니고 유람객도 거의 없었다. 문을 지키는 경찰은 우리를 보더니 하품을 하는 모양새가 그가 만나절이나 기다려서야 겨우 두 유람객을 만났다고 말하는 듯하였다.

우리는 공원의 〇字복도에서 돌아서 물가의 정자에 닿았다. 호숫가에서 호수의 얼음을 보니 이미 깨지긴 했으나, 아직 녹지는 않았다. 두 마리 부리가 긴 백로가 나무 등지에 숨어있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모습을 드러냈다. 물가의 정자에서 나와서 휴산을 지나자 同生사진관, 長美軒 일대 지방이 나왔다. 유리창으로 안을 바라보니, 上林春 안에 두세 사람이 차를 마시는 것 같았다. 오래지 않아 우리들은 御河가의 송림 안으로 걸어갔다. 이곳은 비록 온통 질푸르지만 냉기가 파고들어와 더 배회할 수가 없었다. 충충 걸음으로 사직단 중간의 대로를 지나 그대로 공원을 빠져나왔다.⁶¹⁾

61) 廬隱, 《一個情婦的日記》(京華出版社, 2006) 306~307쪽 참조. 我們離開了姨母家的大門, 便雇了兩部人力車到中央公園去。這時雖然已是初春, 但北方的氣候, 暖得遲, 所以路旁的楊柳還不會吐新芽, 桃花也只有小小的花蕊, 至少還要半個月以後才有開放的消息吧。到中央公園時, 門前車馬疏疏落落, 游人很少。那一個守門的警察見了我們, 微微了一個哈欠, 似乎說他候了大半天, 才候到了這麼兩個游人。

我們從公園的〇字回廊繞到了水榭。在河畔看河裏的冰, 雖然已有了破綻, 然而還未化凍。兩只長嘴鷺鷥躲在樹穴裏, 一切都還顯着僵凍的樣子。從水榭出來, 經過一座土山, 便到了同生照像館, 和長美軒一帶地方。從玻璃窗往裏看, 似乎上林春裏有兩三個人在吃茶。不久我們已走到御河畔的松林裏了。這地方雖然青蔥滿目, 而冷氣侵入, 使我們不敢多徘徊。忙忙的穿過社稷壇中間的大馬路, 仍舊出了公園。

廬隱(1899~1934)의 소설 <상아반지(象牙戒指)>는 불행하게 살다 간 여인의 친구 石評梅(1902~1928)를 기념하기 위해 쓴 장편소설이다. 마치 카메라 렌즈로 중앙공원의 이곳저곳을 찍어 펼쳐놓은 파노라마 같다.

한국 朴泰遠(1909~?)의 단편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에서 지식인인 소설가 구보씨가 집을 나와 京城 거리를 방황하며 사람들과 부딪치고 벼를 만나 차와 술을 함께 하며 옛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고독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 귀가하듯이, 이 소설에서도 중앙공원의 곳곳을 ‘산책자’의 시선으로 개관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이 발길을 옮기는 동안 중앙공원의 모습과 사람들의 표정이 작품 속에 옮겨진다.⁶²⁾

한번은 중앙공원에서 춘계도화전람회를 열었다. 그녀는 남자 학우 세 명, 여자 학우 두 명과 함께 참관하고 아울러 茶座에서 차를 마시는데 차값은 그녀가 내기로 했다. ……

상해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그녀는 매우 격분하였다. 학생회의 사립수가 너무 많아 주장이 일치하지 못하여 정신이 간혹 오락가락할 지경이어서 마침내 몇몇 동학들을 불러 국권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중앙공원에서 성립회를 열 때 그녀는 담홍색의 상의, 연두색 치마를 입었다. ……⁶³⁾

臺靜農(1902~1990) 단편소설 <후회(懊悔)>는 그의 4번째 단편소설로 습작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학생 중의 한 노처녀가 괴벽하고 거만하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사교적인 생활을 하며 국사에도 관심을 가지나 역시 자신의 미모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이다.⁶⁴⁾

62) 유성호,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서울’ 형상 연구>(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제23호> 2004년 9월) 참조.

63) 臺靜農, <懊悔>, <語絲>(주간) 1925년 8월 24일 제41기. 李春林 等編 <語絲選粹>(遼寧大學出版社, 2001) 343쪽. 有一次中央公園開春季圖畫展覽會, 她還約三個男同學, 兩個女同學去參觀, 並且在茶座喝了茶, 茶資是她付的. …… 自上海的不幸的事情發生, 她非常憤激, 爲了學生會的人數過多, 主張不能一致, 精神或失之于散漫, 遂號召些同學組織了一個國權同盟會. 在中央公園開成立會的時候, 她穿了一件妃色的上衣, 淡碧的下裙, ……

64) 金時俊, <臺靜農文學論>(《중국현대문학·제14호》 1998년 6월)

V. 나가며 : 문화소통의 장으로서 공원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21세기 전지구화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다양한 대중문화가 대중 속에서 속출하고 있으며,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구분할 것 없이 혼재되어 문화 향수 공간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현대적 삶에서 20세기의 주요 문화공간이었던 ‘공원’이 아직도 문화소통의 장으로써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지금 한국의 공원은 어떠한가? 실직자, 노숙자, 그리고 한때 산업의 역군이었던, 지금은 빛을 잃은 노인들의 전용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구경거리와 들을 거리가 그다지 많지도 않다. 마치 시골 완행버스를 가득 채운 손님들이 모두 노인인 것처럼 공원도 주변인과 방외인의 집결지가 되었다. 우리 공원의 경우 중국의 ‘偶語棄市’[史記]의 전통→‘莫談國事’ & ‘支那人與狗不准入內’→‘只准高等華人入內’의 역구도를 걸어가는 듯하여 안타깝기만하다. 공원은 또한 역사의 증인이자 현실의 관찰자로 구실하기도 한다.⁶⁵⁾ 지금 중산공원의 경우, 새벽에는 삶의 활력소를 보여주는 체력단련의 장소로, 낮에는 전시회, 음악회 등 각종 문화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공원문화도 지방자치단체의 심적, 물적 지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문화인류학, 도시사회학, 기호학, 건축학, 조경학 등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공간과 소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쯤이면 ‘공원’도 학제적 연구 대열에 편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의 과제도 역시 북경의 문화공간 역할을 했던 대학[紅樓 등], 출판사, 社團, 會館, 서점[琉璃廠], 신문사, 茶館, 戲樓, 胡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65) 최재봉, <문학 속의 공간: 공원> 참조

< 參考文獻 >

- 安藤更生, 《北京案内記》(北京 新民印書館, 1942년 8쇄)
 魯迅, 《魯迅日記(上卷)》(人民文學出版社, 1976)
 , 《北京風物志》(北京旅游出版社, 1984년 5월)
 蒙樹宏 편저, 《魯迅年譜稿》(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88)
 肖鳳, 《冰心傳》(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2)
 王邵軍, 《生命在沉思: 馮至》(花山文藝出版社, 1992)
 陳宗蕃 편저, 《燕都叢考》(北京古籍出版社, 1994년 2쇄)
 史明正 저/王業龍·周衛紅 역, 《走向近代化的北京城》(北京大學出版社, 1995)
 高松年·龍淵 편, 《許欽文散文選集》(百花文藝出版社, 1995)
 劉麗華·鄭智 저, 《魯迅在北京》(北京工業大學出版社, 1996)
 鄧雲鄉, 《增補燕京鄉土記(상하)》(中華書局, 1998)
 鄧曉芒·易中天 저, 《黃與藍的交響》(人民文學出版社, 1999)
 蔣夢麟, 《西潮·新潮》(岳麓書社, 2000)
 李春林 등편, 《語絲選粹》(遼寧大學出版社, 2001)
 鄧雲鄉, 《魯迅與北京風土》(河北教育出版社, 2004)
 工交·張振玉 역, 《林語堂自傳》(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陳平原·王德威 편, 《北京: 都市想像與文化記憶》(北京大學出版社, 2005)
 姜德明 편, 《北京乎: 現代作家筆下的北京(上下)》(三聯書店, 2005)
 楊東平, 《城市季風: 北京和上海的文化精神》(新星出版社, 2006)
 廬隱, 《一個情婦的日記》(京華出版社, 2006)
 王曉漁, 《知識分子的“肉戰”: 現代上海的文化場域(1927~1930)》(上海人民出版社, 2007)
 丁來東, 《北京時代》(平文社, 단기 4290년)
 벤호잇다까·게네스브라운 지음/김용수 옮김, 《도시민을 위한 공간》(대

- 우출판사, 1991)
- Tuan Yi-fu 저/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대운, 1995)
- 서경석, 《한설야: 정치적 죽음과 문학적 삶》(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평전》(지영사, 2000)
- 린위탕 지음/김정희 옮김, 《베이징 이야기》(이산, 2001)
- 김사랑 지음/김재용 편주, 《노마만리》(실천문학사, 2002)
-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중국 역대 도시구조와 사회변천》(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책세상, 2004)
- 이정식 면담/김학준 편집해설/김용호 수정증보,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김성숙·장건상·정화암·이강훈의 독립투쟁》(민음사, 2005)
- 김현정, 《백철문학 연구》(도서출판 역락, 2005)
- 에드워드 렐프 지음/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 강옥희·이순진·이능희·이영미 지음, 《식민지시대 대중예술인 사전》(도서출판 소도, 2006)
- 바네사 R. 슈와르츠 지음/노명우·박성일 옮김, 《구경꾼의 탄생》(마티, 2006)
- 구계강 지음/허취권 정리/조관희 옮김, 《중국역사 이야기》(학고방, 2007)
- 천광중 지음/박지민 옮김, 《풍경: 베이징 古家와 중국 근대사 인물 이야기에서 역사를 보다》(현암사, 2007)
- 조엘 코트킨 지음/윤철희 옮김, 《도시의 역사》(을유문화사, 2007)
- 張燕來, 《北京地名的語言學考察》(北京語言文化大學 現代漢語전공 석사논문, 2000년 5월)
- 金時俊, <臺靜農文學論>(《중국현대문학·제14호》 1998년 6월)
- 김윤식, <베이징, 1945년 초여름: 김사랑, 백철 그리고 노천명>(《문예중앙》 93호, 2001년 2월)
- 유성호,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서울’ 형상 연구>(서울시립대 서울학

연구소 《서울학연구·제23호》 2004년 9월)

조관희, <표상 공간으로서의 베이징>(《中國語文學論叢·제40호》 2006년 10월)

조성환, <북경의 기억, 그리고 서사된 북경>(《중국학·제27집》 2006년 12월)

<中文提要>

一九一三年北京中山公園開始興建, 一九一四年內務總長朱啓鈴主持把社稷壇改爲公園了。公園初開時, 原名是中央公園, 孫中山逝世以後, 才改名爲中山公園。孫中山的盛大追悼會也是在這裏開的。

中山公園對外開放後, 許多知識分子入公園進行了休息、散步、喝茶、吃飯、觀花、開會、交友、編輯等各種日常文化活動。以後中山公園逐漸變成了溝通、傳播文化的重要文化空間。

這篇文章就分析了知識分子對北京文化空間之一‘中山公園’的體驗。主要內容如下。

- I. 引言
- II. 北京的‘綠化’工程
- III. 黃色中綠色文化空間的體驗
 - 一. 新文化運動與中山公園‘來今雨軒’的集會
 - 二. 產生文學創作的公園
 - 三. 綠色回憶: 韓人漫步客&散步者
 - 一) 從中山公園裏看孫文國葬
 - 二) ‘漫步客’對中山公園的回憶
 - 三) 李陸史和白鐵在中山公園見個面
 - 四) 流亡者的北京體驗
- IV. 文學創作裏怎麼描寫中山公園

V. 結言：爲了公園作用的躍進發展。

最近在文化人類學、城市社會學、符號學、建築學、造景學等方面的跨文化研究將活潑進行了。趁這樣的研究熱，文化空間和文化溝通的研究也逐漸進行。通過這樣的文化研究，我們可以進一步理解、探索多層次、多面化的文化空間和溝通的文化知識。

주제어 : 綠化, 文化空間, 中山公園, 新文化運動, 漫步客